

데스크 시각



장 필수
정정부 부장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광주 금남로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참가자가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듯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법원도 청와대 앞 900m에서 시작한 시위 한계선을 금기야 100m 앞까지 허용할 정도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권 공조가 흔들리자 촛불은 곧바로 여의도로 향해 탄핵 표결일인 9일에는 국회를 에워싸기로 했다.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분수령이다. 지난 일요일 특검 팀이 사무실을 광장 등지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 참가자가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듯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법원도 청와대 앞 900m에서 시작한 시위 한계선을 금기야 100m 앞까지 허용할 정도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권 공조가 흔들리자 촛불은 곧바로 여의도로 향해 탄핵 표결일인 9일에는 국회를 에워싸기로 했다.

청문회, 특검, 탄핵, 퇴진... 그 후는?

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싸여 있다.

하지만 청문회부터 반쪽으로 진행된 과연 청와대와 재벌들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이 핵심인데도 정작 국정 농단의 주체인 최순실과 김기춘·우병우 등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들도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모른 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7일 재벌 총수 청문회는 28년 전의 데자뷰였다. 재벌 총수들은 당시에도 정경유착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지만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만 되풀이했다.

민심은 사법처리까지 요구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하거나 9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퇴진은 당연하고 사법처리까지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탄핵 이후, 그것

은’ 무엇일까. 당연히 진실 규명이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만 책임을 묻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참사나 게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못해 또 다시 이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앞으로는 특검 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검 팀 반드시 진실규명을

막중한 역할 만큼 최순실 특검 팀이 밝혀야 할 진실은 많다. 우선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과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등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김기춘·우병우의 국정 농단 목인 및 직무유기 의혹도 반드시 캐내야 한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대가성 기부금을 내는 대신 정부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은 내용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

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합병안에 찬성한 것이다. 대주주의 상속에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이후 정책이나 국민 통합에 있어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탓이다.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가슴에서 노란 리본을 떼지 못하고 집회 때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팻말이 등장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30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력이란 단어는 딱 이쪽 한 곳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절감한 문구다. 새삼스럽게라도 특검 팀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은펜클럽



고 성 혁
시인

일주일에 한 번 씩 국가무형문화재인 나주의 소반장 ‘김춘식’ 선생 공방에서 목공예를 배우고 있다. 지난 여섯 주 동안은 세 번의 옷칠까지 포함 대부분의 시간을 서안(書案)을 만드는 데 보냈다. 서안을 두고 더러 ‘고요함 속에서 무한 에너지를 창출하던 옛 선비의 책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맞는 말이다. 말갈계 앉아 스스로 고요를 머금고 있는 서안. 주변의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난 후 서안을 마주 대하고 앉으면 잡다한 번뇌를 잊게 한다. 마음을 꾸고 다듬어 천판(天板) 위에 꿰어앉히는 듯 고요하게 침묵과 사색이 내린다.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과 평화를 얻을 뿐 아니라 사색 끝에 한 줄의

서안(書案)을 바라보며

문장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서상(書床)이라고도 하는 서안은 옛 선비의 책상이었다. 글을 읽거나 쓸 때 사용하는 낮은 책상이다. 어쩌면 옛 선비들은 그 앞에 단정히 앉아 세상의 이치를 생각했을 것이다. 국가경영에 미흡한 군주를 보면서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기를 펴리며 패부를 찌르는 장계를 썼을 것이 분명하다. 스스로 인형이 되어 희화화를 거듭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를 보면서 서안의 의미를 거듭 되새기게 된다. 서안은 어쩌면 투박하리만치 단정한 듯하다 단단함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할는지 모르겠다.

서안은 뜻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무를 고정하는 힘은 오로지 스스로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나무를 잘라 천판(상판)과 밑판(아래 판), 그리고 양 다리를 만든다. 기본 틀을 만들고 나면 꾸고 밀어 넣을 정밀한 그림(장부 축과 장부 구멍)을 그려야 한다. 그림이 조금이라도 잘못될 경우 들어가야 할 축과 깎아놓은 구멍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몇 번의 실측으로 민음이 생겼을 때 천판에 실제로 사각형 장부 구멍을 뚫을 과 동시에 다리에는 그 구멍에 들어갈 축을 만들고, 양다리에도 가로의 장부 구멍을 뚫고 밑판에 장부 축을 만든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접착제를 묻힌 다음 장부의 결합만으로 합체시켜 견고한 서안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안을 만들 때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의 천판과 밑판, 세로의 양다리를 결부시키는 장부의 축과 구멍의 제단이다. 그것이 정밀함을 결정짓는다는 누군가를 보면서 서안을 만들 수 없다.

지난달 결혼한 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 내외를 불렀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익숙지 않았을 것이다. 녀석들이 상대의 성격에 맞추기 위해 다소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서안을 가리키며 얘기를 꺼냈다. “서로 다른 나무가 자신의 품에 구멍을 내고 상대에게 파고들게 함으로써 하나가 된 게 저 서안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다. 한마음으로 하나의 몸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서안이야말로 일심동체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서안은 서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자신을 양보하여 상대의 삶이 자신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밀착되게 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런 연후에도 조금이라도 튀어나오거나 들어맞지 않는 면이 있으면 몸으로 자르고 비틀어 맞추거나 그 흠을 메워야 한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사포로 골고루 문질러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자신의 기호에 따라 도료를 칠하는 것이다. 옷칠의 경우 김춘식 선생 공방에서는 3주에 걸쳐 칠하고 말린 후 결을 따라 사포질을 반복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 정도의 노고를 거치니 어찌 애정이 없을 수 있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며 상대의 몸을 받아들이는 헌신과 양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하나가 되는 뼈저린 체현(體現)이 분명할 것이다. 서안은 어쩌면 양보로 탄생하는 명상의 틀인 지도 모르겠다. 아들 내외가 그 말의 의미를 부디 알아들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오 정 희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

지난 11월24일 전남도청 영인실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에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의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들이 자리 잡은 곳은 지리산 왕시루 봉으로, 이 일대를 지리산 선교유적지로 부른다. 유적지에는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근대유산으로 손꼽는 12채 건축물이 있다. 노르웨이, 미국, 호주, 영국 등 선교사들의 고향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선교유적의 국제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지연구회

지리산 선교유적지의 재발견

주관으로 기독교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등재를 추진 중인 일본 전문가 등 세계유산 전문가와 근대문화 유산 연구자 및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이 참여, 그 의의를 되새겼다. 중앙 문화재위원회 이상해 위원장은 ‘세계유산의 이해와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전남남도 선교유적 발표 순서에는 문화재 위원인 남호연 교수의 ‘지리산선교유적의 근대문화문화재적 가치’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지리산 선교유적지는 1895년부터 호남 지역 선교활동을 맡은 미(美)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당시 조선인들의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워 의료기술, 그리고 서양건축 양식 등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남긴 개화기 유산으로 문화재 등록을 위해 법안에서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 선교유적지 보존에는 곡절도 있었다. 지난 2007년 8월3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리산선교유적지를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지리산 기

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은 1921년 노고단 예배당과 1962년 왕시루봉 수양관 건축물은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이를 반대, 보존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단체는 2007년 12월3일 전남도청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 유적지 보존을 위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은 (사)도코모모코리아(근대건축보존회)와 2009년 11월 조사연구 용역을 체결하여 고증자료를 발간하였고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시민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주최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참가하여 2011년도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수상했다. 2015년 6월에는 국립공원을 사당하는 시민의 모임 주최 지리산왕시루봉 유적지 전문가 간담회가 구례 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전문가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운영자 교수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하였다.

역사학자 이만열(전 국사편찬 위원장) 교수는 1921년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 등 한글 문법이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 탄생된 장소로 지리산선교유적지는 비단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 2006년 지리산자락에 자리한 하동차문화센터 연구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적지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그후 선교유적지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그 당시 생존자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은 영상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결국 그 영상자료가 오늘날 마중물이 되어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됐기 때문이다.

‘백 년 전 세상을 탐하다’의 지은이 최예선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건축물이 얼마 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건축이 아릅답고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았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그 건축은 온몸으로 역사를 보여주고 시대를 증언한다.” 이번 국제학술회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社說

‘보안 손님’ 제집처럼 청와대 드나들었다니

국정 농단 범죄로 구속된 최순실·차은택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인 청와대 출입자인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대통령 관저를 제맛대로 드나들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최 씨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호실도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 손님의 존재 가능성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서 대통령경호실 5차장은 엇그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이 “차 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에 청와대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차 씨와 최 씨 모두 보안손님이 맞느냐”는 질문에 ‘보안손님’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어 “보안 손님은 부속실의 요청으로 지정한다”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과 사전 협조를 시사했다. 또한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안손님’은 대통령 접견 인사 중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별도 출입하

는 인사를 뜻하는 경호실 내부 용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비선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이 사실상 프리패스를 통해 청와대를 제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출입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기존 답을 반복했다.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관저 출입 일지에 대해서는 2급 비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첩첩함은 보안이 요구되는 청와대의 경호가 이처럼 뻥 뚫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 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안보를 논했다니, 참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안 손님’인 최순실·차은택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은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도둑질한 ‘범손님’일 뿐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임기응변 식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민심 응답 마지막 기회까지 외면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촛불 민심의 요구인 즉각적인 사퇴의 길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저지른 헌정 파괴와 국정 농단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촛불 민심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채 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반대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명예로운 퇴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촛불 민심에 떠밀려 나갈 수는 없다는 뜻을 분

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으로 인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도덕성, 판단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9일 탄핵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은 아니더라도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 전 민심에 응답할 마지막 기회까지 외면했다.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박 대통령은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란 JP(김종필 전 총리)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국정 농단의 몸통인 대통령이 민심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에 ‘범대로’를 들이치는 황당한 상황이다. 길은 이제 탄핵밖에 없다. 과정은 길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평화로운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던 국민적 지력은 국정 공백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어느새 금남로 색깔이 바뀌었다. 셋 노랑던 가로변이 갈색으로 변했다. 은행나무들이 노란 잎을 모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제 나무들은 풍당 빗자루를 세운 듯 앙상한 나목(裸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자 무등고 ‘만추(晩秋)’를 보신 70대 독자께서 전화를 하셨다. 글 내용 가운데 은행나무를 ‘침엽수’라고 표현한 것에 의문을 표하신 것이다. 기자는 ‘칼럼을 쓸 때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관련 서적을 꼼꼼하게 읽고 인용한 다’고 전체 조건을 말

했다. “은행나무는 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은행나무’에서 침엽수로 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은행나무 잎의 잎맥은 세로로 길게 나 있습니다. 원래 은행나무 잎은 바늘 모습인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바늘잎 여러 개가 다닥

다닥 붙은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라 보는 거지요.” 산림청에 재직 중인 친구 역시 “은행나무 잎은 ‘그물맥’이 아니고 ‘나란히맥’이기 때문에 침엽수로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나무 백 가지’라는 책에서 “(은행나무가) 침엽인지 활엽인지는 잎을 보고 구분하기에 좋도록 만든 것이라 할 때, 본래 어퍼했던 지금 엄연히 넓은 잎으로 보이면 활엽수인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한다.

철고(拙稿)를 읽고 공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를 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은행나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